

제12차 FAVA(Federation of Asian Veterinary Ass., 아시아수의사회) CONGRESS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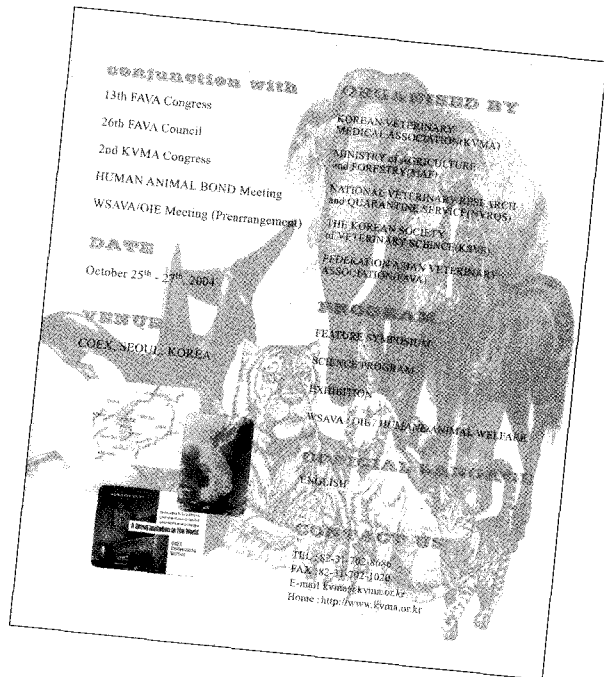
〈대한수의사회 기획실 과장 우연철〉

1. 서론

지난 8월 26일(월)~28일(수)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수의사회의 주최로 개최된 제12차 아시아수의사회(FAVA, 회장 : Dr. Ching Yi Kuo 대만수의사회장) Congress에 이우재회장 외 22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각 국에서 150명내외로 참석하였으며, 말레이시아에는 400명정도의 수의사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FAVA는 1978년 우리회를 비롯하여 아시아 6개국(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수의사회가 아시아수의사의 단합과 발전을 위하여 조직한 것으로 매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여 심포지엄과 학술발표를 통하여 아시아수의계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우리회는 지난 2000년 제11차 FAVA Congress(대만 타이페이) 및 2001년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의 결의로 2004년도 제13차 FAVA 총회 개최를 유치한 바 있다.



이것은 지난 1982년 이후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회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계획한 것은 기존에 모임정도로만 인식되어 오던 총회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수의사들의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야심찬 계획하에 진행한 것이며, 아시아수의사회의 주도국으로서의 입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제12차 FAVA Congress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3차 대한민국 FAVA Congress를 홍보하기 위하여 이우재회장의 22명의 공식 참가단을 구성하였으며, 제24차 FAVA 이사회에서 우리회 이우재회장이 2004년~2006년까지 FAVA 회장에 피선되었으며(2002년~2004년까지는 부회장으로 활동), 학술행사에는 우리나라에서 6명이 강연과 4명이 포스터 발표를 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손색없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우리회에서는 이번 총회가 제13차 FAVA 총회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생각하여 자체적으로 홍보리플렛을 500부 제작하였고,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로 우리나라 홍보CD와 여행안내, 사진자료 등의 홍보책자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동남아의 경우 구제역의 상재지역이므로 총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참가계획과 참가단의 현황을 통보하여 출국 시 방역에 대한 교육과 입국 시 철저히 소독을 마치고 입국하는 등 방역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승원검역검사과장 으로부터 방역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참석자들

〈제12차 FAVA Congress 참여 일정〉

| 일 자 | 시 간 | 일 정 | 비 고 |
|--------|---------------|------------------------------------|-----|
| 25일(일) | 09:00 | 인천공항 3층 만남 및 구제역방역교육 | |
| | 11:30 | 인천 출발(MH067) | |
| | 17:35 | 말레이시아 세팡공항도착(호텔투숙, 휴식) | |
| 26일(월) | 전일 | 제12차 FAVA 총회 등록 | |
| | 09:00 | FAVA 이사회 개최 | 회장 |
| | 19:00 | Cocktail Reception | |
| | 20:00 | Congress Banquet(Official Opening) | |
| 27일(화) | 전일 | Science Program | |
| | 09:00 - 12:00 | KEY-NOTE & PLENARY SESSION | |
| | 14:00 - 17:10 | SESSION I - VII | |
| 28일(수) | 전일 | Science Program | |
| | 09:45 - 12:10 | SESSION VIII - X VI | |
| 29일(목) | 전일 | 랑카위 관광 | |
| 30일(금) | 01:10 | 말레이시아 세팡공항 출발(MH066) | |
| | 08:40 |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 |

〈제12회 말레이시아 FAVA Congress 참가자〉

| 성명 | 현직 | 비고 | 성명 | 현직 | 비고 |
|-----|-------------|--------------|-----|-------------|----|
| 이우재 | 국회의원 | 대수 회장 | 서강문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
| 정영채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 대수 수석부회장 | 박승준 | 경북대 수의대 교수 | |
| 우기방 | 경기도수의사회장 | 대수 부회장 | 허주형 | 인천 고려동물병원장 | |
| 상래홍 | 서울시수의사회장 | 대수 부회장 | 임영석 | 인천 구피동물병원장 | |
| 최철순 | 중앙대 의대 교수 | 대수 학술홍보위원장 | 이종화 | 부천스포츠펠 대표 | |
| 김선중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대수 국제협력위원장 | 홍진희 | | |
| 백충기 | 네슬레 퓨리나 | 대수 조직강화특별위원장 | 주은영 | | |
| 이흥식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서울대 수의대 학장 | 강효선 | | |
| 김무강 | 충남대 수의대 교수 | 대한수의학회장 | 이원철 | 대한수의사회 상무 | |
| 남치주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 우연철 | 대한수의사회 과장 | |
| 최찬영 | 경기 신진동물병원장 | | 이종현 |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 |
| 최민철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 | | |

대한수의

2. 제12차 FAVA Congress 행사 구성

이번 제12차 FAVA Congress는 제14차 말레이시아 수의사년차대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Globalization-Challenges to the Veterinary Profession"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12차 FAVA Congress는 8월 26일 09:00~12:00까지 개최된 제24차 FAVA Council Meeting을 시작으로 20:00에 Official Opening을 Banquet(공식만찬)와 함께 개최하였다.

8월 27일에는 08:45~12:10까지 KEYNOTE & PLENARY SESSION으로 주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오후에는 Science Program을 7개의 주제로 나누어 개최하였다.

8월 28일에는 08:45~12:10까지 총 9개의 주제로 나누어 개최되었고, 중식을 마치고 제12차 FAVA Congress의 공식적인 종료가 선언되었다.

이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24차 FAVA COUNCIL-MEETING(26일 09:00-12:00)



제24차 FAVA Council에 참석한 이우재회장

제24차 FAVA Council-Meeting(이사회)은 FAVA회장인 Dr. Ching Yi Kuo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우리회 이우재회장(정영채수석부회장, 최철순학술홍보위원장, 김선중국제협력위원장 공동참가)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아시아 10개국 수의사회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회원국들이 회비를 미

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회원국 자격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어 회비납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 호주수의사회장)가 구성되어 활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국별로 자국의 수의사의 현황과 수의학교육, 현안사항에 대하여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 우리회에서는 우리회의 현황과 구제역발생과 종식에 대한 보고, 그리고 2004년 제13차 FAVA 총회 개최에 대한 홍보를 하여 일본수의사회로부터 많은 참가를 약속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2년~2004년까지의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관례대로 2002년 행사를 개최한 말레이시아수의사회장인 Dr Mattai Abdul Rahman이 회장이 되었고, 우리회 이우재회장과 대만수의사회장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서 우리회 이우재회장은 2004년-2006년까지 FAVA의 회장직을 맡게 되어 2004년부터는 아시아수의사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회의 발의로 제기된 저개발국 수의사회의지원문제가 논의되어 회비의 대납문제와 FAVA 이사회 및 총회 참가경비지원에 대한 문제도 심도깊게 논의되었다.



우리회 이우재회장은 Coffee Break 시간에 세계수의사회(WVA, 회장 : Dr Jim Edward)에 우리나라 동덕여대 수의학과 신설문제를 거론하여 세계수의사회장으로 부터 우리나라 교육부장관에게 항의서를 전달하도록 하여 2002년 9월 9일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접수되었다.

② Official Opening & Banquet(26일 19:45-22:00)

8월 26일은 말레이시아수의사회(VAM)의 총회가 개최되었고, 저녁부터 공식적인 FAVA Congress의 개막식이 만찬과 함께 개최되었다. 개막식과 만찬은 FAVA 회장의 공식적인 개막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말레이시아 농림부장관(Dr. Mohd Effendi Norwawi)과 세계수의사회장의 축하인사가 이어졌다. 만찬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전통음식과 민속춤 등의 공연과 어우러지는 행사가 되었으며, 아시아의 수의사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13차 FAVA Congress 개막식에 참석한 우리회 회원

③ KEYNOTE & PLENARY SESSION(27일 08:45-12:10)

“Globalization-Challenges to the Veterinary Profession”이라는 행사주제에 대한 세계수의사회장의 KEYNOTE 강연을 시작으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PLENARY SESSION 첫 번째로 WTO와 AFTA(아시아자유무역기구)의 현황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중보건, 구제역, 남아프리카의 졸업후 교육 등의

5개의 주제에 대한 심포지엄이 이어졌다.

④ Science Session(8월 27일 20:00-28일 12:10)



Science Program은 총 16개의 Session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Session의 구성은 Session 1(OIE/FAVA), Session 2·5(POULTRY), Session 3(SWINE), Session 4·7·10·14(SMALL ANIMAL), Session 6(EPIDEMIOLOGY), Session 8·12(ANIMAL HEALTH), Session 9·13(ANIMAL PRODUCTION), Session 11·15(EQUINE MEDICINE), Session 16(FMD)으로

대한수

구성되었다. 또한 포스터발표는 총 31명이 발표하였다. 학술행사는 전체적인 말레이시아의 수의학의 수준과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우리나라의 참석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의학의 수준이 말레이시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인하여 몇가지의 주제를 제외하고는 흥미있는 행사가 되지 못하였다.

④ Science Session 우리나라 발표자 (8월 27일 20:00 - 28일 12:10)

Science Session에는 총 6명의 우리나라 발표자가 아래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OP(Oral Presentation)로 참석하였다.



- 아 래 -

- 경북대 수의대 박승춘교수 : Change of intracellular calcium concentration after administration of Mycoplasmas in porcine
- 서울대 수의대 김선중 교수 : Experimental egg transmission of virulent Newcastle disease virus
- 중앙대 의대 최철순교수 : emerging and Re-emerging zoonotic infectious disease in Korea
- 서울대 수의대 최민철 교수 : Ultrasonographic observation of intestinal motility of dogs after acupunctural stimulation on acupoints ST-36 & BL27
- 서울대 수의대 이홍식학장 : Today & tomorrow of veterinary profession in Korea
- 서울대 수의대 서강문교수 : A survey of ophthalmic disease in Korean Jindo dogs

⑤ Poster 우리나라 발표자 (8월 27일 20:00 - 28일 12:10)



- 서울대 수의대 서강문교수 : Study on the ophthalmic disease in Sprague-Dawley rats, ICR mice and Balb/ C mice
- 서울대 수의대 남치주교수 : Effects of electro-acupuncture on gastric motility in dogs
- 서울대 수의대 이충현 : Capsaicin alters Neuropeptide Y and Cholecystokinin expressions in the hypothalamus

- 중앙대 산업대 정영채교수 : Aerobic bacteria and antibiotic treatment in boar semen

3. 행사를 마치고

이번 제12차 FAVA Congress를 정리하면, 국제적인 행사로는 주최국의 미숙한 진행(예를들면, 국제참석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자국 농림부장관의 참여지연으로 인한 개막식의 1시간이상 지연, 행사장소 근처의 불거리 미비, 우리회에서 개최하는 제13차 FAVA Congress에 대한 안내시간 미배정, 공식적인 폐막식 미거행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점들이 있어 우리회로는 다음 행사 개최를 위한 좋은 경험이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수의사들의 경우 외국의 학술행사 참여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수의사회에서 이러한 국제 행사 참석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



다. 외국의 경우 일반 임상수의사들이 학회에 발표자로 많이 참석하여 임상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우정을 나누는 것이 참으로 보기 좋았으며, 우리회 허주형원장의 경우에는 해외학회에 많이 참석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지인들을 가지고 있어 이번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일정을 마치고 29일에는 랑카위섬 관광을 하였다. 랑카위는 현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의 고향이며, 말레이시아 정부차원에서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섬으로 깨끗한 인도양 위에 좋은 관광지였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제주도가 훨씬 풍광이나 관광지, 숙박시설들이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랑카위섬의 상징인 벽돌색독수리상 앞에서



랑카위 해변에서

대한수의사
학회

일정 상 새벽에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02:10에 돌아오는 비행기 탑승하였으나 밤새 제13차 FAVA Congress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행사의 개최와 많은 참여에 대한 생각을 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의계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겠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중에서도 서로를 챙기며, 재미있는 학회여행길이 되게 해 준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부부동반 한 상래홍회장 · 허주형원장 · 임영석원장님 부부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아 앞으로 우리나라 수의사들도 해외학회에 참석할 때에는 부부동반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4. 말레이시아 소개

이번에 FAVA 총회를 개최하는 말레이시아는 적도 바로 북단인 북위 7도의 동남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한 열대의 나라이다. 말레이 반도의 서 말레이시아와 보루네오섬에 있는 사바, 사라왁 두 개 주의 동 말레이시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이들 모두 합쳐 329,758 평방킬로미터로 우리나라 면적의 3배가량 된다. 기후는 연중에 걸쳐 온난, 다습하며, GMT(그리니치 표준시)보다 8시간 빨라서 9시간이 빠른 우리나라와는 1시간의 시차를 가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총 인구 약 2,130만명의 다인종국가로 구성인종을 살펴보면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의 주 인종그룹과 사바와 사라왁주의 다양한 토착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통합이 국가의 가장 큰 문제이다. 경제부분은 중국계의 영향력이 막대하여 이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리고 있으며, 말레이계의 사회경제적

말레이시아 쿠말라룸프르의 상징인
KLCC타워 앞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국가이다.

국어는 말레이시아어이며 영어 또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슬람이 공식국교로 불교와 힌두교, 기독교 그리고 다른 종교들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이슬람교의 영향이 막대하여 마약과 총기를 소지하면 외국인이라도 사형에 처하는 등 치안유지가 잘 되고 있으며, 현 마하티르수상이 20년 가량 집권하면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소득이 7000\$이 된다.

<경제>

말레이시아는 1차 산업에 기반을 둔 자유 기업 경제 체제의 개발 도상국으로서 점차 산업화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주식, 고무, 야자유의 세계적 생산국이며 다른 주요 산물로는 목재, 후추 등이 있다.

<수의학교육>

수의학교육은 전국에 1개대학(푸트리수의과대학, UPM)만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이슬람교의 특성상 개를 기르지 않아 반려동물의 경우 중국계가 기르는 개와 말레이계가 기르는 고양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기후상 젖소의 사육이 어려워 산업동물의 경우에는 양계산업만 발달되어 있는 등 수의사가 수요가 많지 않은 것과 소수의 대학만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탓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폐>

말레이시아의 화폐단위는 링깃(RM)이며, 1링깃은 약 350원입니다. 말레이시아도 외환위기 시기를 거쳤지만, IMF의 구제금융보다 몇 개 나라에서 차관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으며, 외환위기의 주 원인을 달러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보고 1US=3.8RM이라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였다. 대부분의 물가는 저렴하지만 담배·술·자동차 등 기호 소비품의 가격은 한국과 대등하거나 비싼 편이다.

예) 맥주 1병 14링깃(일반카페 기준), 휘발유 1ℓ는 1.3링깃, 시내버스 0.5링깃, LRT(전철) 0.7링깃, 신문(1부)1링깃, 일반택시 기본요금 2링깃, 생수(1병) = 2.5링깃, 영화 1편 8링깃 등

<역사>

인도양과 남지나해 사이에 위치한 말레이시아는 옛부터 동·서양의 무역상인들과 여행자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가 되어왔으며 이러한 전략적 위치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와의 상호작용으로 특징지어진다. 외세의 영향이 많은 나라였으며,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등이 들어왔으며, 1511년 마라카(향료의 원산지)는 포르투갈 수중에 넘어갔으며 이어 1641년에는 네덜란드에, 마지막으로 1815년에는

영국의 손에 넘어갔다. 영국은 1786년 프란시스 라이트가 페낭에 도착한 이후 말레이시아반도 전 지역을 장악하였다. 바다 건너 보루네오 섬에 있는 사라왁주는 1841년 이후 영국 모험가인 제임스 부룩(James Brooke)과 그의 후손들에 의해 통치되었다. 1888년 사라왁주와 북 보루네오(차후 사바로 개칭됨)는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종식 후 민족주의 운동이 재기되어 1957년 8월 31일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63년 동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1965년 분리, 독립)를 포함한 현재의 말레이시아 연방이 성립되었다.

<생각>

말레이시아는 13개 주와 두 개의 연방정부 - 쿠알라룸푸르와 라부안 (사바주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한 섬)로 구성되어 있다. 13개주 가운데 9개주에는 각각의 세습 통치자가 있으며 이들 가운데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양 디 빠르뚜안 아공(국왕)이 5년마다 선출되고 있다.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며, 하원의원들은 전적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반면, 상원 의원들은 공적이 뛰어나거나, 특정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았거나, 소수 민족들의 지도자 격이거나, 토착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민들중에서 왕이 직접 임명한다. 정부의 수뇌인 수상은 하원의원 중에서 선출되는데, 그는 여러 장관들로 구성된 내각을 대표한다. 한편 말레이시아 13개 주에는 각 주마다 선거로 선출되는 수석 장관과 주의회가 있다.

